

사회

法에도 '눈물'이...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베트남 투안씨 아내 출산위해 3개월 출국 유예 에덴병원 출산·산후조리비 전액·아가방앤컴퍼니선 육아용품 지원키로

불법 체류로 불들려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던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 투안씨(광주일보 3월 10일 7면)가 주위의 도움으로 아내의 출산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됐다.



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정현 의원(왼쪽)이 투안씨 부부에게 출국 유예 소식을 전하고,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며 격려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정현 의원 나서 성사

1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하남공단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불합허 보 호감호 조치했던 투안(29)씨가 3개월 출국 유예됐다. 투안씨는 아내와 출산의 고통을 나눈 뒤 오는 6월께 아내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천영)와 베트남 지인들은 보증금 300만원을 모아 관리소에 납부, 투안씨의 석방을 도왔다.

외국인센터 보증금 마련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출국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삭의 몸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까지 찾아온 투안씨의 아내(27)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의 얼굴을 보자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보호실에서 만삭의 아내를 걱정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냈던 투안씨는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내를 끌어안은 투안씨는 "꿈

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현실이 됐다"며 "광주와 한국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법에 온정이 있고 법보다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투안씨 부부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의원은 "법에 온정이 있고 법보다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투안씨 부부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아내를 끌어안은 투안씨는 "꿈

"미국 사는 내가 무등도서관서 책 빌렸다고?"

명의도용 도서대출 피해 잇따라

개인정보 빼내 카드 발급... 북부경찰 수사

광주의 한 도서관에서 타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해 도서 등을 대출하는 명의도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16일 해외로 이민 간 오모(여·46)씨는 지난달 21일 무등도서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의 아들이 지난달 7일 도서 5권을 대출해간 뒤 기한(2월 21일) 내에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였다.

오씨는 아들이 도서대출카드를 분실한 줄 알고 확인한 결과, 대출카드가 있었다.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제전화로 건 오씨는 더욱 황당한 답변을 전해 들었다. 지난 1월 22일에도 오씨는 아들이 도서대출카드를 5권을 빌려갔다는 것이다.

오씨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도서

대출 이전에 해외로 이민왔고 도서대출카드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책을 빌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으나, 담당 직원은 "대출자가 아들이 맞다"는 답변뿐이었다.

화가 난 오씨는 지난달 21일 누군가 자신의 아들 명의·휴대전화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도서대출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것으로 보고 광주 북부경찰에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에 사는 김모(여·43)씨도 지난 1월 8일 무등도서관으로부터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빌린 책을 반납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무등도서관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휴대전화를 적어 넣은 뒤 도서대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무등도서관을 간 적도 없는데, 왜 이러한 문자가 계속 날아오는지 모르겠다. 문자메시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북부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한 뒤 도서대출카드를 발급받아 책을 빌리는 명의도용 사건인지, 또는 대출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건 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 무등도서관 관계자는 "대출담당 직원이 실수로 대출을 해주면서 실제 대출자가 아닌 오씨 아들 이름으로 접수해 생긴 일인 것 같다"며 "하루 평균 어린이 도서대출 수가 1000권 이상인데,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265) 김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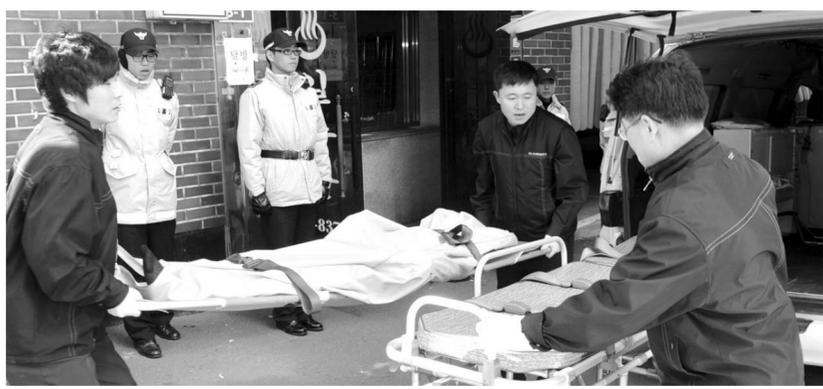
광주FC 직원 채용 1천만원 거래 의혹 경찰 수사 나서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0일 "광주FC 고위관계자 A씨가 올해 초 직원 채용에 응모한 B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는 정보가 입수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채용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A씨는 "설 연휴기간중 B씨가 건넨 케이크 상자를 받았는데 그 안에 현금 10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이후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아 10일쯤 뒤에 되돌려줬다. 뇌물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한 여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40)씨의 사체를 경찰 관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부검을 의뢰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싸움 소리...여관 객실에 불 40대 투숙객 숨진 채 발견

얼굴에 흉기 자국도

불이 난 광주의 한 여관 객실에서 40대 투숙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밤 11시55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한 여관 305호 객실에서 불이 난 것을 주인(여·58)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화재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305호 안에서 301호 장씨 투숙객 김모(40·곡성군 옥곡읍)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얼굴에는 흉기에 베인 듯한 자국이 남겨져 있었으며, 객실 내부에는 흉기가 놓여져 있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장자연 편지' 편지봉투에 조작 흔적

경찰 "발신지 숨기기 목적"

경기지방경찰청은 故 장자연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갑자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편지봉투에서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편지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의 발신지 부분이 가로 4cm·세로 1cm의 직사각형 형태로 3군데 잘

려져 있었다. 조작 흔적이 발견된 봉투는 전씨가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형태의 항공우편 봉투로, 우체국 지역명과 고유번호 부분이 반듯이 잘린 채 날짜만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우체국 소인 부분에 발신지 정보가 없고 날짜만 남은 봉투도 함께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봉투가 조작 흔적이 있는 봉투를 그대로 복사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지를 어디에서 보냈는지 발신지를 숨기려는 목적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한 원본 편지 24장이 장씨 사건 재판부에 전씨가 제출한 편지 231쪽과 내용과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희뉴스

목포수협장·조합원 8명 일괄기소 검토

검찰, 금품선거 수사

검찰이 '목포수협장 금품 선거 사건'에 연루된 현 조합장과 조합원 등 8명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과장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10일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는 목포수협장 최모(59)씨 등 8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후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씨 등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선거의 공소시효 만료(15일)를 감안해 오는 14일께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 치러진 목포수협장 선거에서 금품을 건네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경찰

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김모(52)씨에게 "선거운동원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에 대한 선거 지원을 대가로 1억2000만원 원을 요구한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미얀마 수도승 여자 초등생 성추행
장성경찰, 20대 검거
장성경찰은 10일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미얀마 국적의 수도승 B(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40분께 장성군 북하면 한 식당 앞에서 초등학교 6년 A(13)양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7년 국내에 입국해 2009년 초부터 백양사에서 수행중인 B씨는 이날 밤을 먹기 위해 이 식당에 왔다가 A양이 식당업주의 초등학생 아들 2명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밖으로 끌고 나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양을 식당 앞에서 성추행하던 중 우연히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중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명예, 귀, 행정, 행정, 귀, 헌법, 헌법, 경찰, 교정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채점확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시간 1시간)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1월